

스마트팜 발전에 줄어드는 농기계

농식품부,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광주 7721대·전남 27만5138대 벼농사 감소에 논농사 기계↓...밭작물 기계화 촉진에 밭농사 기계는 ↑

농업인이 줄고 스마트팜 등의 기술 발전으로 광주·전남 농기계 수도 줄어들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농업인들이 보유한 트랙터와 콤팩트·이앙기 등 16개 농기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광주지역 농기계 보유 대수는 9429대(2010년)에서 10년 뒤에는 8394대(2020년)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7721대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농기계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10년 29만 5391대였던 농기계가 10년 뒤인 2020년에는 28만 976대로 5%

가량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1% 더 줄어 27만 5138대로 집계됐다.

농업보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이 늘어나면서 농경지 자체가 감소한데다, 스마트 팜 등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기계가 필요없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경지면적은 지난 2021년 9368ha였지만 지난해 9145ha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남 역시 28만 1077ha에서 27만 4435ha로 2.4%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벼농사 감소로 논 농업 관련 농기계 수는 감소했지만 밭 농업 관련 농기계 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농업인들의 이앙기 보유 대수는 지난해 879대, 콤팩트는 442대로 지난 2020년(이앙기 1001대·콤팩트 481대) 대비 각각 12.2%, 8.1% 감소했다.

전남에서도 지난 2020년 2만 3848대였던 이앙기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2277대로 6.6% 줄었고, 같은 기간 콤팩트는 1만 1984대에서 1만 1153대로 6.9% 감소했다.

반면,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 밭농사 관련 농기계는 늘었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난 2020년 파종기 7대, 정식기 3대, 수확기 1대 등 11대에 불과했지만 귀농 증가와 밭작물 기계화 촉진 등의 영향으로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는 지난해 150대(파종기 57대·정식기 43대·수확기 50대)로 14배 가량 폭증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2747대(2023년)로 3년 전(2685대)보다 소폭 늘었다. /장윤영 기자 zzang@



aT, 베를린서 K푸드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4일 유럽축구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독일 베를린에서 전남 특산품을 비롯한 K-푸드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각국 축구팬들을 대상으로 K-푸드를 홍보했다. 독일은 K-푸드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로, 지난해 K-푸드 수입액이 8780만 달러에 달했다. 부스에서는 저탄소 유기농, 친환경, 비건 등을 주제로 떡볶이, 김밥, 김치 전 등의 음식과 보성 녹차라떼, 고흥 유자차, 광양 매실차 등 전남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무알코올 음료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aT 제공>

추락 멈추지 않는 쌀값에도 대책 없는 정부

전남도, 15만 t 추가 격리 요구

쌀값 하락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까지 하락한 상태로, 쌀 한 가마니(80kg)당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 약속은 '식언(食言)'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10월 이후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햅쌀(조생종)이 나오는 8월 중순이 되면 광주·전남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보관중인 기존 쌀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재고 쌀을 팔아내려는 RPC측의 저가 방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햅쌀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농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로 파악한 쌀 한 가마(80kg) 가격은 지난 5월 기준 18만 3960으로, 지난달 25일 가격(18만 6376원)보다 1.3%(2416원) 떨어졌다. 지난해 7월(18만 6106원)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 가격인 평년가격(19만 1022원)보다도 무려 3.8%(7062원) 하락했다.

통상적 쌀값 추이라면 햅쌀 수확 전인 단경기(端境期-묵은쌀이 떨어지고 햅쌀이 나올 무렵·7~9월)부터 오름세로 전환해야 하지만 반등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농업계 우려다.

지난해 시장 격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 물량도 많고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 '신히'도 보이지 않으면서 햅쌀 수확 전까지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실정

다. 앞서, 지난 2월 정부가 추락하는 쌀값을 안정시키라며 창고에 남아있는 쌀 5만t을 사들이기로 했지만 쌀값 하락세를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당장, 전남의 경우 농협 RPC 등의 재고 물량이 17만 9000 t으로 전년보다 89%나 많은 상태다. 광주도 재고 물량이 전년보다 5만 1000포(20kg 기준) 많아 농협광주본부들 중심으로 대량 거래처에 대한 무료 배송 등을 내걸고 '광주쌀 5만포 팔기 운동'에 나선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쌀값 하락세를 멈추기 위한 재고물량(15만 t) 추가 격리를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전남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잡초 년 대체 뭐니?

농경지 잡초만 1600여종...알면 유용한 '선한 잡초'도 많아

농사를 짓는 이라면 '농사가 작물을 키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잡초를 못 자라게 하는 일'이라는 말에 공감할 것이다. '잡초와의 전쟁'이 농사라는 말이다.

잡초는 주로 산과 들에 알아서 번식하는 잡다한 풀로 인간에 의해 재배되는 식물이 아니다. 작물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해 직간접으로 작물의 수량이나 품질을 나쁘게 하는 식물의 통칭이지, 특정한 식물 종을 분류할 때 쓰는 용어는 아니라는 의미다.

에 자라는 것으로는 바랭이, 강아지풀, 쇠비름, 방동사니, 개풀, 흰명아주, 개비름, 여뀌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아는 잡초 중에는 갈대나, 쑥, 토끼풀, 닭의장풀, 민들레, 박하처럼 나름대로 쓸모를 찾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종도 있다. '선한 잡초'라고도 불리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부레옥잠은 수질 정화식물로 쓰인다.

인간에겐 유용한 대부분의 농작물은 그 쓰임을 위해 상당량의 영양소를 사용한다. 곡식이나 과일 등 농작물은 자신이 가진 영양소의 상당량을 성장과 번식에 쓰지 않고 씨앗이나 열매에 축적하는데, 이때문에 맛있고 유용한 먹거리가 되는 것이다.

잡초는 무엇보다도 강한 생명력이 특징이다. 대부분이 인간에게는 별 쓸모가 없지만, 번식만큼은 왕성해서 재배 중인 작물의 영양소를 빼앗아 먹는 것은 물론이고 잎사귀나 줄기가 작물을 뒤덮어 성장을 방해하고 생존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인류는 농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농작물이 더욱 많은 영양소를 작물 자신이 아닌 인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품종을 개량해 왔다. 이 작물들 사이에 살며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를 제거 대상으로 삼고 다량의 제초제를 개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나쁜 환경조건에서도 잘 자라 가볍고 많은 종자를 주변에 퍼뜨린다. 길가와 논둑, 들판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질경이의 경우 씨앗을 수레 바퀴 밑에서도 살 수 있다는 뜻에서 '차전자(車前子)'라 부를 정도이니 말을 해서 무엇하겠는가.

곰팡이 생각해보면 잡초가 주는 해악이라는 것도 인간의 기준일 뿐이고 생태계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다. 지금처럼 사료가 보편화되기 전 소나 염소 등 가축의 먹이로 쓰였던 잡초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땅속 깊은 곳에서 영양 염류를 퍼 올리는 기능을 하는가 하면 땅을 섬유화시켜서 표토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지극히 단순한 잡초는 이름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종류도 오만가지다. 지구상에 생육하는 식물 3만여 종 중에 농경지에 자라는 잡초만 1600여 종에 이른다 고 한다. 국내에는 비농경지 등의 잡초를 포함해 40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논과 밭에서 주로 피해를 주는 잡초로 각각 20여 종과 40여 종이 꼽힌다.

이처럼 잡초를 없애버려야 하는 존재로 지목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잡초 나름대로 환경과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탓이다. 새로운 작물을 육성하거나 유용한 성분을 뽑아내 농약과 의약, 향신료 등에 이용되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농업인들이 잡초의 유용성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작물로서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업 관련 연구소에서는 눈에 보이는 잡초를 화분과 2종(강피, 풀피), 사초과 2종(울쟁이고랭이, 알방동사니), 광명 5종(물달개비, 미국의 풀, 발톱외풀, 마디꽃, 벼풀) 등 보통 총 9종으로 나눠 분류한다.

또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밭작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잡초는 총 375종. 본격적으로 밭작물 재배를 시작하는 6월

/bigkim@kwangju.co.kr

전남도, 전복 어가 돕기 할인 행사 진행

전복 사주기 운동 추진

삼복(三伏) 더위를 앞두고 전복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전복 어가들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복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이달 말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할인 쿠폰을 활용하면 택배비를 포함해 1kg

(13~14미 10cm) 기준 활전복 1박스를 2만 3000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100박스를 단체 주문할 경우 1박스당 2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단, 7500박스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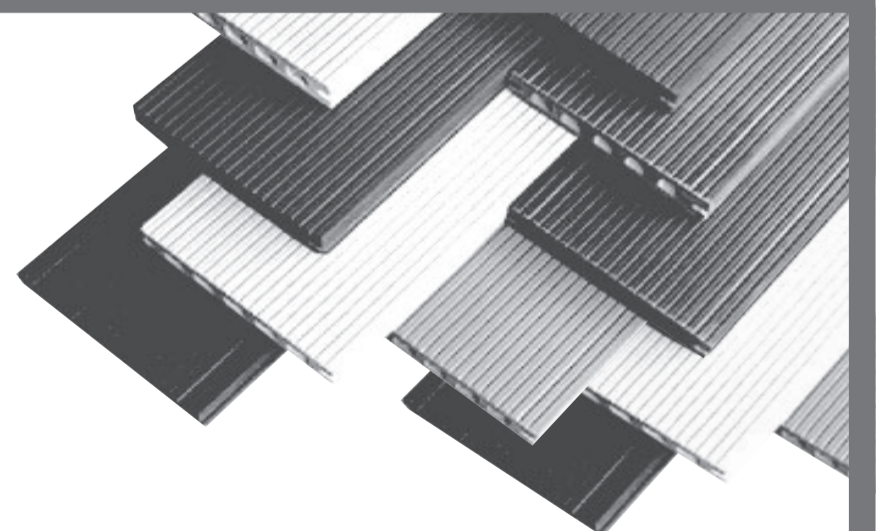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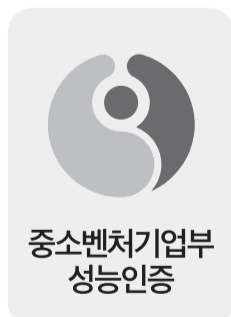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남도 산하기관·사업소를 비롯, 도의회, 전국 광역시도, 전국기초자치단체, 전국시도교육청 등에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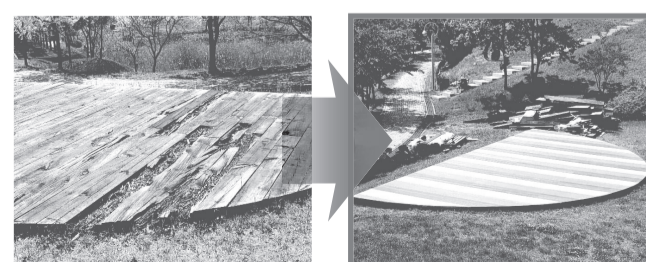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